



매월 '불교중흥' 토론

자승 총무원장, 내년부터... '승가교육' 담화문서 밝혀
"사회에 부흥하고 자비 구현하려면 개혁 반드시 필요"

조계종이 승가교육 진흥과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를 2011년 한 해 동안 매월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승가 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적인 승가교육진흥을 추진으로 불교중흥을 이룩합시다'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갈망하는 중도들의 원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승가교육진흥위원회의 지속·원만한 추진을 꾀하고자 마련돼 2011년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12회에 걸쳐 열린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 시대에 적합하고 필요한 불교교리·사상, 출가, 교육, 승가교시, 포교 등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에 대해 매

월 주제를 정해 입장을 발표하고 중도들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토론회를 통해 수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무기관 및 사찰과 협의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총무원장자승은 "승가교육개혁을 통해 양성된 스님들이 행하는 전법교화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며 "지속적인 교육진흥위원회를 추진해 한국사회와 세계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의 담화문은 현실감 없는 한국불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교육원이 추진 중인 승가교육위원회의 경과와 과제 등을 설명하는데 상당 분량이 할애됐다.

자승 스님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에서 한국불교가 그 종교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다"면서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의 여파에 부응하며 자비를 구현하려면 승가교육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꺼냈다.

스님은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편, 승가대학원·국제불교학교 개설, 상시 연수교육 프로그램·학인 스님 장학제도·교육아사리 지원책 실시 등 교육원이 추진 중인 승가교육 개혁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은 "중도들이 교육진흥기금을 통해 많은 협조를 성원을 보내줘 큰 힘이 됐다"며 "스스로 떠안은 불교중흥에 대한 무한책임을 내년에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빈 그릇 운동, 함께해요!" 서울 인왕초교 3학년 4반 학생들은 올해 3월 초부터 점심을 먹고 식판에 물을 붓고 행구어 마시는 '빈 그릇 운동'에 동참했다. 담임 신정화 교사는 "빈 그릇 운동이 실질적인 환경보호 해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관음종 제7세 종정 죽산 대종사 입적

서울 묘각사에서 27일 영결식

관음종 종정 남천(南天) 죽산(竹山) 스님이 11월 23일 오후 1시 10분 입적했다. 법랍 59세, 세남 77세. 스님의 영결식은 27일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묘각사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남천 스님은 평소 "세상의 모든 세계가 같거나 모양 없는 법신이 어찌 둘이 있으랴, 중생과 모든 부처님은 다르지 않으니 산은 절로 높고 물 또한 절로 깊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대중에게 보시·이타행을 실천하기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남북 대화의 장에 나서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불교계 성명 발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남북 대화를 통한 생명 존중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

조계종은 11월 23일 논평에서 북

한 당국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진각종(통리위원장 혜정)은 논평을 통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력이라는 힘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도 논평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이행 ④ 중국선종, 도교와 유교의 한계 극복하다

남대사

중국의 2대 사상의 원류는 유교와 도교다. 유교는 북방에서, 도교는 남방에서 싹텄다. 초나라 사립인 노자가 주나라 낙양으로 가 관리가 됐는데 그 주요무대가 남방이었던 것이다. 이후 장자도 남방에서 우주를 노래했다. 그리고 북방에서 발생했던 유교는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중국 땅에 퍼졌다. 이러한 도양에서 외래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질풍노도처럼 파고들었을까. 인간을 도덕적으로 구속하는 유가의 답답함과 인간을 현실로부터 도피케 하는 도가의 공허함도 큰 이유였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의 안심임을 찾는 현재의 종교인 것이다. 중국선종의 초조라 할 수 있는 해가와 같은 전체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시경)과 (역경), 특히 노자의 《도덕경》 같은 서적인 서적에 달동했던 해가 뒤늦게 달마를 만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안심임을 이뤘던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도교와 유교가 불교에 밀려나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배척하고 수용하면서 흥망을 거듭했다. 6조 혜능 이후 융성했던 남종선에도 도가의 무위자연은 지위를 감추지 않고 선적으로 승화됐다. 부처가 되려는 수행을 굳이 하지 말고 이미 부처임을 깨달았다는 혜능의 '돈오(頓悟)'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노장의 '무위(無爲)'는 이복형제 같은 모습이다. 실제로 회암은 '무위의 법'을 얻고자 스승을 찾아 나섰고, 석두희천(石頭希遷)의 다음과 같은 선화(禪話)들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면에 계속

"종교평화 대안 마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정부에 촉구

"불교평화 방지에 종교지도자와 정부가 나서라."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는 제185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불교평화 관련 성명서를 11월 23일 발표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불교 핍박에 대한

성명서'에서 "종교 문제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종교지도자들의 종교평화를 위한 실천과 정부의 종교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동국대 총장후보 8명 접수

김희옥 재판관 등...경주캠은 16명

제17대 동국대 총장 후보 접수결과 보광 스님과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서울캠퍼스 8명, 경주캠퍼스 16명이 등록했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는 "11월 24~25일 총장 후보 접수 결과, 서울캠퍼스 8명, 경주캠퍼스 16명이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후보자는 내부 논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총추위는 후보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2일 후보자를 공식 발표한다. 이후 8~9일 각각 서울·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후 3~5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복수 추천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14일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서울·경주캠퍼스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새 총장의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조동섭 기자

www.hanmaum.org

대형 콘스탄의 법과 영감을 위한 2011년 다이어리 출시!

마음으로 쓰는 다이어리

하루라는 삶의 리메이커를 마음의 손으로 지켜보고 마음의 손으로 기록하며 소중한 하루가꾸어주세요

구입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031)470-3100

핫키피 발열내의

난로보다 훨씬 낫다 온몸이 후끈후끈~

입기만해도 뜨끈뜨끈 3.3℃~5.6℃까지 상승시켜주는 기능성 발열내의

국제공인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KATRI)시험검사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겨울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골프나 등산, 낚시, 조깅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추위에 민감하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고 여러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땀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은 좀처럼 피할 수 없다. 겨울철에 내의를 입게되면 체감온도가 1℃~2℃까지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땀통에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잘입지 않으려고 한다.

첨단기술로 특허 받은 발열내의

핫키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 기능성 발열특허(특허번호: 10-0863991)원단을 소재로 만들어 입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3.3℃~5.6℃까지 상승하며 뛰어난 신축성과 초경량의 무게로 신체의 유연성까지 확보해 주는 발열내의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주)MFT에서 출시한 '핫키피 3.3'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9년간 연구개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기적같은 발열섬유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핫키피 3.3'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발열 기능

성 조형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피부와 접촉하여 혈류량을 높이고 미세한 기도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온열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세탁에도 발열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

입은듯 안입은듯 얇고 가볍고 뛰어난 신축성

또한 스포츠 의류의 경우 운동시 발생하는 땀을 즉시 건조, 배출시켜 신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어 야 하는데 '핫키피 3.3'은 통기성이 좋고 땀흡수력이 뛰어나며 자체 항균기능이 있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다. 폴라텍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핫키피 3.3'은 50여가지의 피부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다.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특허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성적서를 통과하여 검증된 '핫키피 3.3'은 입기만 해도 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99%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와 정전기방지 효과, 원적외선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디자인이 뛰어난 본래 기능인 내복으로 입어도 좋고 멋스러운 부츠에 레깅스로 센스있게 연출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매일 출, 퇴근하는 직장인, 건설현장, 노점상, 택배기사 등 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 나스키, 골프, 등산 등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한복과 따뜻한 체감온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발열내의 '핫키피 3.3'은 상의와 하의세트를 파격가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세트 구입시 130,000원에 추가할인된다.

특허번호 : 10-0863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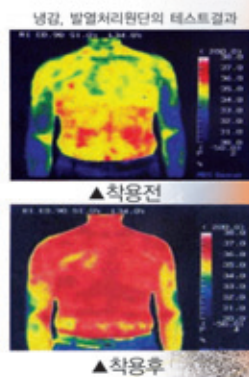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 특허

· 색상 : 검정색, 진화색 (S, M, L, XL)

■ 구입문의 : 080-840-7000

■ 농협 : 317-0002-3339-31 (주)오뚜기

상·하의 세트 69,800원 (택배비 무료)



현장근무, 군인, 경비, 시장상인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낚시, 골프, 야외활동에 안심맞춤 ·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